

<서평>

구약학 입문 시리즈 1 『오경』 과 2 『역사서』

유윤중*

들어가는 말

구약학 입문 시리즈(Interpreting Biblical Texts Series)는 미국의 아빙돈 출판사(Abingdon Press)가 기획 출판했다. 구약성경을 오경, 역사서, 시편, 지혜서, 예언서의 5권, 신약성경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들, 바울서신의 5권, 신구약 공통인 묵시문학 1권, 총 11권으로 편성해 출판했다. 각 권은 200페이지 내외이며,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해 이 시리즈의 권위와 신뢰도를 높여준다. 이 시리즈의 발간사에서 책임 편집자인 구약의 진 터커와 신약의 찰스 코우사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이 시리즈의 목적은 진지한 독서와 해석을 경험하고자 하는 독자에게 본문의 세계에 대한 여행 안내서를 제시하는 것이다...이 시리즈의 주요 초점은 본문 이면의 세계나 본문이 발생하게 된 세계가 아니라 독자와의 관계 속에서 본문을 통해 창출된 세계이다(프랫하임, 『오경』,

* 평택대학교 피어선 신학전문대학원, 구약학

9).

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시리즈의 모든 책은 두 가지 질문을 제시한다. 첫째, 최근 연구사에 등장한 해석의 쟁점은 무엇이며, 독자는 본문에 대해 얼마나 신경 써야 하는가이다. 둘째, 본문과 관련된 보다 큰 세계 속에서 볼 때 어떤 의미가 생성되는가이다. 즉 나무와 숲을 동시에 제시하고자 한다(프렛하임, 『오경』, 9-10). 이 시리즈의 성격을 교육적이라고 명백하게 밝힌다. 다른 학자들과의 논쟁보다는 독자들을 위해 본문의 이해에 필요한 쟁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 시리즈는 성서를 깊이 있게 읽기를 원하는 학생과 본문에 대한 핵심 쟁점과 독법을 재정리하고자 하는 학자들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에서는 구약학 5권과 묵시문학 1권, 총 6권이 ‘구약학 입문 시리즈’라는 기획아래 대한기독교서회에서 번역 출판을 계획하고 있다. 그 가운데 프렛하임의 『오경』이 이영미, 넬슨의 『역사서』가 이윤경의 번역으로 올해 출간되었다. 이 시리즈의 번역진을 대표하여 차준희는 구약학 입문 시리즈 발간의 서문에서 “구약성서의 본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다리를 놓는 목적과 더불어, 교단 간의 차이를 넘어서고 아우르는 초교파적인 구약학 교과서가 되기를 바라는 취지로 기획”되었다고 서술한다.

훌륭한 필진으로 구성된 구약과 관련된 6권을 최고의 번역진을 구성해 우리말로 번역하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지금까지 번역된 대부분의 구약입문서와는 달리 학문적인 논쟁점들과 본문의 이해와 필요한 독법과 주요 주제를 본문과 독자와의 대화라는 차원에서 유용하고도 명쾌하게 정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 글에서는 올해 출간된 『오경』과 『역사서』에 대해 서평하고자 한다.

1. 테렌스 E. 프렛하임, 『오경』 (구약학 입문 시리즈 1; 이영미 옮김; 대한기독교서회, 2015)

이 책의 서문에서 저자는 “오경이 현대 독자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관한 말씀에 관심을 기울인다”라고 강조점을 서술하면서, “오경의 수사학, 즉 저자가 독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 특별히 고안한 본문 속의 문체나 내용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이 책의 주요 방향을 알려준다. 즉 이 책의 목적은 전통적인 구약학 연구방법론인 역사비평을 지양하고, 오경 내에서 독자들에게 제시한 수사적 기법과 오경이 어떻게 오늘날의 독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가를 드러내고자 한다. 이 책은 크게 2부로 구성된다. 제 1부는 오경의 주제와 해석 방법론을 다루며, 제 2부는 오경의 주제와 수사 전략들을 각 책별로 구분해 소개한다.

1.1. 제1부 오경 연구

저자는 독자에 큰 관심을 가진다. 저자가 전제로 하는 독자는 21세기 현재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진지하고 지적 관심을 가진 기독교인이다. 그리하여 오경의 기본 양식에 대해 ‘토라’(=율법)라는 고착화된 유대교적 용어보다는 보다 큰 단위의 오경의 문학 형식을 ‘설화’라고 주장하며, 오경의 많은 내용이 신약성서에 활용되어 있음을 주목하며 기독교의 경전으로서의 오경의 의미를 강조한다.

제 1부의 핵심은 오경에 관한 연구 방법론의 소개이다. 방법론에 대한 저자의 관점은 ‘혼란에 빠진 비평적 연구와 새롭게 등장한 문학적 연구’라는 표현 속에 잘 드러난다(25쪽). 저자의 주된 관심이 본문의 형성에 관한 이론보다는 오경을 하나의 문학적 구조 속에 두고 그 문학적, 신학적 의미를 추구하는 데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낸다. 먼저 저자

중심의 접근방법을 대표하는 ‘역사비평’에 자료비평, 본문비평, 전승비평, 양식비평, 편집비평, 정경비평, 고대 근동의 맥락에서의 이스라엘 역사 연구, 사회 인류학적 접근, 종교사학과 등을 포함시켜 간략하고도 핵심적인 사항을 소개한다. 본문 중심의 접근방법을 대표하는 ‘문학비평’에 수사비평, 구조비평을 포함시켜 설명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을 소개하기보다는 역사비평과 구별되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소위 일컫는 신문학비평에 대해서도 과거와 현재의 역사적 간격을 무시하는 독선에 빠진다면 저자와 독자 모두를 무시하게 된다고 경고한다. 그러나 저자는 독자가 본문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초점을 둔 독자-중심 비평을 강조한다. 본문의 의미란 저자나 본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와의 대화를 통해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본문의 의미가 독자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에 주목하고, 독자-중심의 독법이 성서 연구에 아직 걸음마 단계임을 지적한다. 저자는 성서의 독자를 암시된 독자, 역사적 독자, 성서 이후 세대의 독자로 구분하며, 독자반응비평은 마지막 독자에 관심을 기울인다고 독자를 명확히 한다. 그렇다고 독자가 읽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읽을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독자의 독법을 제한시키는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한다. 첫째, 본문 자체이다. 본문이 독자를 인도하는 것이지, 독자가 마음대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역사적 배경의 이해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역사적 배경에 대한 정보는 항상 명확한 것이 아니므로 거기에 매일 필요는 없다. 셋째, 독자들의 공동체 또한 다양하고 이색적이라는 것이다. 독자들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독법 마찬가지로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급적 개방적인 태도로 열어가면서 대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저자는 어떤 독법을 취하든 궁극적으로 오경의 본문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즉 신학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이 주된 관심이라고 지적한다. 본문 자체가 말하는 신학과 메시지를 제시하고자 하며, 오경을 신학적인 책이라는 점을 강

조하며 그 신학을 찾기 위한 문학양식과 수사 전략에 초점을 둔다.

1.2. 오경 읽기에 관한 제안

이 장에서 저자는 오경에 대해 본문 중심적 접근과 독자 중심적 접근을 도입해, 오경의 수사 전략을 소개한다. 오경의 수사 전략은 시작과 끝에 잘 드러나 있으므로 창세기 1-11장과 신명기를 중심으로 자신의 독법을 적용해 설명한다. 오경의 수사 전략을 소개하기에 앞서 저자는 본문의 암시된 독자와 청중이 누구인가를 찾는다. 저자는 신명기 1-4장의 분석을 통해 오경의 암시된 저자는 오경의 이야기와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는 다른 시간, 즉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다고 있으며, 오경의 암시된 독자 마찬가지로 배교, 예루살렘의 파괴, 상실과 고통, 바벨론 포로를 경험한 포로 가운데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신명기의 수사 전략은 조건절과 필연성에 관한 표현의 사용을 통해 암시된 독자들이 고통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안내한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하나님의 백성을 구체적인 역사속의 사람들로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세대에 적용시키는 수사 전략을 사용한다고 파악한다. 즉 신명기 1-3장에서 ‘우리’와 ‘너희’를 사용해 암시된 독자들도 동참하도록 촉구한다는 것이다.

창세기 1-11장에 나타난 수사 전략은 독자들로 하여금 열거된 것들의 우주적 지평을 바라보도록 제시되었다고 본다. 창세기 1-1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활동은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세기 1-1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미지를 주제별로 다루고 있다. ‘창조주 하나님, 선택하시는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율법 수여자로서의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관계속의 하나님, 선하고 책임감 있는 피조물로서의 인간, 죄 많은 존재로서의 인간의 10가지 주제는 우주적 배경에서 활동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암시된 독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의 미래를 위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기능을 하며, 오경의 나머지 메시지의 방향을 설정해준다고 주장한다.

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의 수사학은 설교식 언어와 교훈적인 성격에 있으므로, 신명기를 ‘설교된 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경의 마지막 책으로서의 신명기는 민수기와 출애굽기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중요하게 발전되어 온 요소들을 되새겨 보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한다. 한편으로 오경의 마지막 책으로서의 신명기는 약속의 성취를 유예시키며, 불확실한 미래를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그 점에 대해 저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날의 출애굽 공동체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포로 공동체를 위해 수사학적으로 고안된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 아울러 신명기는 도착이 아니라, 출발 직전의 임시정지로 끝나며 미래를 위해 열려있는 책이라고 지적한다. 신명기는 신명기 역사서의 출발점으로 뒤이어 나오는 책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신학적 주제를 통해 연결시킨다.

1.3. 제2부

1.3.1. 창세기

창세기의 특성을 설화와 족보라는 문학유형으로 분류하며, 성격을 다양한 기원에서 유래된 문학작품의 편집으로 파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창조’에서 시작해 ‘좋은 사역’(창 50:20)으로 끝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통전적 읽기를 제시한다. 이어서 ‘원역사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유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으로 단원을 나누어 설명한다. 원역사는 세상의 창조와 타락(1:1-6:4)과 홍수(6:5-8:22)와 새로운 세계(9:1-11:26)로 구분해 주요 주제들을 설명해낸다. 창세기

12-50장의 경우 세 개의 족장 이야기를 간략히 소개한 후 신학적 주제들에 초점을 둔다. 주제별로 족장 이야기의 흐름을 짚어나간다. ‘여정, 창조, 하나님의 약속들, 인간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구분해 각각의 이야기에 적용시켜 풀어나간다.

1.3.2. 출애굽기

출애굽기의 특성은 이스라엘의 기원에 관한 것이며 출애굽과 시내산에서의 율법수여 등은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위한 토대가 되는 책으로 제시한다. 출애굽기의 자료들 또한 형식과 내용면에서 매우 다양함을 지적하며 출애굽기의 문학 양식은 설화와 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시한다. 출애굽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함에 있어서 저자는 ‘출거리의 흐름, 출애굽기의 구조, 출애굽기의 주제들’로 구분해 다루고 있다. 특히 주제들을 소개할 때 출애굽기의 본문에서 따왔다는 점은 독특하다. 저자가 서두에서 이야기한 본문이 말하는 신학을 다루겠다는 목적에 어울리는 표현방식이다.

1.3.3. 레위기

레위기를 오경의 중심이라고 주장한다. 제의와 예배가 이스라엘의 삶과 공동체의 평안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하나님은 제의를 통해 계속 활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레위기에 나타난 특징을 저자는 ‘생명지향적인 세상을 제시한 점’이라고 지적한다. 레위기는 제사장의 규범으로 인식되지만, 대부분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이라는 점에서 모든 공동체가 참여하는 예배공동체라는 이상을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레위기의 주요 내용을 ‘율법과 창조, 희생제의 제도, 정결법, 율법과 성결, 율법과 계약과 선조들과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소개하고 있다. 레위기의 내용을 다루면서도 오경의 이전 주제들과의

연결점을 지속적으로 다룬다.

1.3.4. 민수기

민수기의 특징에 대해 저자는 “창조질서 보존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정체성을 지닌 공동체를 형성할 가능성과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다룬다고 제시한다(172). 민수기의 기원 역시 구두전승에서부터 전승 자료들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민수기의 구조는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과 여정의 지리적 기준에 따른 방안을 제시한다. 민수기의 중심주제 역시 민수기의 본문의 일부에서 따온 표현을 주제화시켜 다룬다.

1.3.5. 신명기

신명기의 특징은 끝이면서도 시작인 책이라는 것이다. 과거를 회상하고 또한 미래를 내다본다고 제안한다. 그러므로 독자가 전에 일어난 일과 후에 일어날 일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해석의 틀을 제시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신명기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이 있지만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 신명기의 경고의 깊이와 이스라엘의 영적 대응의 필요성을 설명해준다고 적고 있다. 신명기의 구조를 연설의 표제에 따른 구조, 명령과 규례들을 통한 구조, 율법의 책을 중심으로 한 구조로 나누어 살핀다. 신명기는 신학적으로 매우 풍부한 책임을 지적하면서, 신명기의 중심 주제를 선조들과의 약속, 율법과 구속과 창조, 이스라엘 법의 역동적인 특성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1.4. 비판적 읽기

위에서 소개한대로 오경을 이해하는 저자의 방법론은 크게 보아 공시적 연구에 속한다. 구체적인 텍스트의 역사를 추적하기보다는 완성된 본문의 구조 내에서 의미와 신학적 메시지를 찾고자 한다. 하나의 정해진 방법론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본문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자유자재로 다루면서 오늘날의 기독교인 독자들을 오경의 세계로 안내한다. 서평자가 보기에 저자의 주된 관심사는 ‘신학에 있다. 지금까지 발간된 그의 저서와 글들의 특징은 한국인 독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통찰력을 가진 메시지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 책도 방향은 약간 다를지라도 근본적으로 본문의 메시지를 찾아서 오늘날의 독자와 연결시켜 주려는 시도는 많은 부분에서 번뜩이는 혜안을 풍성히 제공해준다.

서평자가 보기에 이 책이 가진 가장 큰 공헌점은 구약학계에서 다소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독자반응비평(이 책에는 ‘독자 중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을 사용해 오경의 목적과 메시지를 쉽고도 유익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자반응비평에 회의적인 학자들은 독자의 의미해석의 권한을 어디까지 부여할 것인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해왔다. 이 책에서는 그 권한을 본문의 의미와 잘 조화시키면서 통제하고 있다. 특히 창세기 1-11장과 신명기에 대한 저자의 해석 속에 녹아있는 독법과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들을 위한 책으로서의 오경의 가치를 드높여준다. 두 번째 공헌은 오경을 한권의 책으로 다루면서도 이후의 책에 열려있다는 것을 지적한 점이다. 새로운 주장은 아닐지라도 오경내의 구체적인 주제들이 일관성 있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풍부하게 제시하고 있다. 오경은 한권의 책이라는 점과 다섯 권의 책임과 동시에 이후의 책들과 열려있다는 점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나무와 숲에 대한 관찰에 비유하자면 나무에 대한 것과 숲에 대한 것을 적절하게 잘 조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세 번째 공헌은 각 권의 구조와 메시지 사이의 연결이다. 특히 오경에서 창세기 1-11장의 구조와 메시지가 신명기의 구조와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오경 전체의 메시지를 파악하는 해석학적 틀로서의 기능을 설득

력 있게 설명한 부분은 놀랍다.

한편 이 책에서 아쉬움도 찾을 수 있다. 이 책은 구성에 있어서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오경의 주제와 수사 전략들에서 각 책을 소개할 때 ‘특성과 기원’을 제외하고는 약간씩 다 다르다. 주제를 다루는 방식도 책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오경의 전체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처리하지 못하다고 지적할 수 있다. 창세기 1-11장은 본문을 비교적 자세히 다루면서 설명하지만, 나머지 책들은 본문을 다루지 않고 주제들만 소개한다. 중심 주제를 소개할 때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는 성경 본문에서 따온 표현으로 풀어나가지만, 창세기와 신명기의 경우는 임의적으로 주제를 정해 설명한다. 창세기와 신명기는 왜 본문에서 따온 표현이 아닌 주제를 선정해 설명하는지 그 이유는 설명되어 있지 않다.

이 책은 이영미 교수에 의해 번역되었다. 일반적으로 번역된 글을 읽으면서 느끼는 가장 큰 불편은 문장이 다소 생경하거나 어색해 의미가 단번에 와 닿지 않을 때가 많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읽어나가면서 특별히 걸리는 부분이 없다. 문장 자체가 수려하지는 않아도 짙막하게 끊어서 의미전달을 명확하고 쉽게 하고 있어서, 원숙한 번역의 맛을 느낄 수 있다.

2. 리처드 D. 넬슨, 『역사서』 (구약학 입문 시리즈 2; 이윤경 옮김; 대한기독교서회, 2015)

저자는 서문에서 이 책의 목적을 ‘역사서라는 해석적 복합체를 통해 일종의 지도를 만들어내고자 한다(9)’라고 서술한다. 저자는 그 지도제작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현재를 위한 것이라는 역사연구 자체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 책은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역사서 해석의 쟁점들’을 다루며, 제2부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이야기 꼼꼼히 읽기’로 여호수아에

서 에스라/느헤미야까지 각 권별로 소개한다.

2.1. 제1부 우리는 무엇을 읽고 있는가?

구약성서 역사서의 성격을 ‘역사’(history)라는 단어보다는 ‘역사편찬’(historiography)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 용어는 역사서가 순수한 의미의 역사를 기록하기보다는 목적과 의미를 둔 해석된 역사라는 측면에서 사용한 것이다. 저자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모든 역사는 해석된 것이라는 전제하에 오늘날의 독자를 위한 역사서 해석의 열쇠를 제시한다. 저자는 역사편찬을 ‘참고문학’이라고 정의한다. 저자는 역사서의 저자가 오늘날의 기준에서 보아 부족해보이지만 과거를 재현하는 것에 정확성을 기울이고 과거를 의미 있게 배열하고 사건의 중요성과 의의를 신실하게 평가하고자 노력했다고 믿는다. 그 참고문학의 목적은 단순히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것임을 동시에 살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2.2. 역사적 배경

역사서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등장(여호수아, 사사기)에서 시작해, 국가건설(사무엘상하), 왕정(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회복(에스라, 느헤미야)으로 구분해 각 시대별로 주요한 사건과 사회상을 소개한다.

2.3. 독서의 형태들

역사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주제, 즉 해석 방법론을 다룬다.

저자는 성서의 텍스트가 단일 시간에 단일 저자에 의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구전에서부터 기록되고 수정되고 편집되고 수정되는 오랜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기와 다양한 관점을 반영한 다층적 이야기라고 정의하며, 다양한 청중의 관심사를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텍스트의 다양한 구성요소와 상호의존의 관계를 발견하기 위해 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통시적-공시적 방법 모두를 요구한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난해한 본문으로 정평이 나 있는 사무엘하 24장(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로 읽기(문학비평), 양식으로 읽기(양식비평), 전승으로 읽기(전승사), 편집적 외관으로 읽기(편집비평), 역사적 발전과정으로 읽기(역사비평), 정경으로 읽기(정경비평)로 나누어 방법론에 따라 다양한 해석학적 의미를 드러내고자 한다.

이야기 비평으로 사무엘하 24장을 읽을 때 1절에 나오는 ‘야웨의 진노’의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저자는 텍스트가 침묵하고자 하는 것에 질문하는 것은 헛된 것이며, 텍스트의 침묵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야웨가 백성을 계수하라고 다윗을 선동한 것’ 또한 해결할 수 없는 수수께끼에 속한다고 한다. 야웨가 다윗을 선동한 후 어떻게 다윗을 비난할 수 있는가라는 점 때문이다. 야웨의 선하심을 신앙으로 믿는 현대 독자들에게 더욱더 그렇다. 저자는 ‘구약시대 후기까지 이스라엘은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덕을 보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힘을 과감하게 고백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인다’고 지적한다. 또한 저자는 사무엘하 24장이 신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이 대조를 이룬다고 주장한다. 관점이 대조를 이루며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둘을 연결시키는 것은 갖과 천사, 그리고 타작마당이라고 설명한다. 문학비평을 통한 사무엘하 24장의 해석은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를 그대로 두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점의 대조를 통해 대비시킨 뒤 연결점을 찾아 갈등의 해소를 시도한다.

저자는 양식비평으로 사무엘하 24장을 읽은 후, 다양한 양식이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을 밝힌다. 24:5-7에 나온 ‘경계지점 목록’이 인구조사

임무를 위한 경로로 사용되었음을 주장한다. ‘성소 설립 전설’이라는 표준 양식 또한 발견되는 데 정해진 성소를 합법화하기 사용되었다고 설명한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 장소로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즉 이 전설은 예루살렘 성소의 거룩과 유효성을 주장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무엘하 24:21-24의 토지 매매기사에서, ‘대화 계약’이라는 양식이 사용된 것은 거룩한 제단의 장소가 여부스족이 아니라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속한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다양한 양식들은 원래 따로 존재하다가 후에 역사편찬이라는 내러티브 속에 들어와 신학적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사용되었다고 설명한다.

전승으로 사무엘하 24장을 읽으면서 저자는 다양한 전승을 찾아낸다. 첫째 시온전승이다. 사무엘하 24장은 야웨께서 예루살렘을 특별히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야웨의 은혜가 그 거룩한 장소인 예루살렘에서 드러나는 제사의 효과에 의해 검증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거룩한 전쟁의 신학에 나오는 ‘용사로서의 야웨’ 전승이다. 이 전승은 왕권이 등장하면서 사라진다. 사무엘하 24장은 용사로서의 야웨 전승이 사라지는 한 단계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예언전승이다. 예언자 갓이 메신저 전달양식을 사용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편집적 외관으로 사무엘하 24장을 읽으면서 저자는 두 가지 사항을 드러낸다. 첫째, 사무엘하 24:1의 ‘다시’라는 단어에 주목해 사무엘하 24장이 21:1-14의 기근 이야기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두 내러티브 모두 다윗이 온 좋게 회피해보고자 재앙을 내린 야웨에 맞선 무례한 행위를 서술한다고 주장한다. 두 이야기 사이의 유사점은 초기 자료들을 수집한 편집자에 의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사무엘하 24장을 역대하 21장과 비교해 읽음으로써 신학의 변화에 따른 역대기 편집자의 편집을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다윗의 인구조사를 부추킨 것은 사탄의 탓이라고 수정한다. 아울러 레위인의 개입을 정당화시키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솔로몬의 성전터임을 정확하게 밝힌다.

사무엘하 24장의 본문을 역사적 발전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근거를 저자

는 본문 속에 담고 있는 수많은 불일치 내지는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본다. 사무엘하 24장에 대한 역사비평은 두 가지의 접근법이 있다. 첫째, 오래된 원래의 본문에 후대의 해석이 덧붙여져 확장되고 보충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래의 본문이 무엇이나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본래의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인구조사, 재앙, 제단건축이라는 세 개의 내러티브가 한데 묶인 것으로 추측하고 접근하는 방법이다. 역사비평적 읽기를 통해 저자는 세 가지의 다른 관점이 있음을 제시한다.

정경으로 사무엘하 24장을 읽을 때 보다 큰 맥락에서 그 신학적 의미를 조명할 수 있다고 본다. 저자와 독자의 마음에 두고 있던 것을 넘어선 의미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무엘서의 결론으로 이 장은 다윗에 대한 정경적 주석과 독법에 대한 안내자 역할을 한다. 다윗은 회개와 신앙의 모델이라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장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야웨의 본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관찰한다.

2.4. 제2부

역사서에 속한 각 책을 ‘형태와 구조, 해석의 쟁점, 구성, 상황과 청중, 주제’의 5가지로 나누어 다룬다.

2.4.1. 여호수아

저자는 오늘날의 독자적 관점에서 당혹한 내용을 담고 있는 여호수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를 안내한다. 여호수아에 나타난 정복과 분배 이야기는 역사적 실재라기보다는 이상화된 설명이라고 보며, 제국주의적 침략과 정복의 관점으로 대입시켜 제국주의적 정복을 합리화하는 책으로서의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무력함과 취약한 입장에 대처하는 입장으로서 여호수아를 읽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스라엘은

강한 적들에게 위협을 받고 침략당하는 토착민의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2.4.2. 사사기

여호수아에서 사사기로 넘어온 독자가 맞이하게 되는 것은 여호수아의 이상적인 모습과 사사기의 부정적인 모습, 즉 비밀관성이다. 저자는 최종적인 형태에서 보면 두 책의 비밀관성은 모순이 아니라 관점의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호수아의 낙관적 관점은 성취를 묘사하지만, 사사기의 현실적 관점은 불순종과 적들과의 투쟁을 설명하는 다음 에피소드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한다.

2.4.3. 사무엘상하

사무엘서의 해석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복잡한 구성사에 있다고 파악한다. 최종적인 관점은 예루살렘 성전과 왕정체제의 가치지만, 그 가운데서도 옛 전승들이 또렷이 나타타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은 친왕정과 반왕정의 목소리가 혼재된 구절들이다. 오늘날의 독자는 사무엘을 읽을 때 반왕정적인 목소리와 다윗의 행동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는 권력자와 약자 사이의 차이를 제도화하고 심화하는 국가의 경향을 지적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왕정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통해 오늘날 인간 삶에 나타난 권력의 폭력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2.4.4. 열왕기상하

열왕기에는 주요 사료들이 언급된다. 신명기 사가가 왕들에 관한 자료들의 사용과 더불어 전해져 내려오던 예언자적 자료를 사용해 열왕

기를 저술했다는 것이다. 열왕기를 역사자료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는 주요 논쟁거리이다. 저자는 열왕기의 역사적 인과관계 이론은 정치적 혹은 경제적인 것보다는 신학적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열왕기에 사용된 예언자에 대한 민담과 이야기, 왕의 통치 연대를 위한 연표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평가한다.

2.4.5. 역대상하

저자는 역대기를 현대적 의미의 역사라기보다는 이야기꾼의 작품으로 파악한다. 왜냐하면 가적이나 군대의 규모 등에 대해 과장된 수치가 제시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무명의 예언자들이 자유자재로 첨가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역대기에 언급된 자료들로부터의 인용은 서술한 내용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문학적 장식과 전략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역대기 내의 문학적 통일성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역대상 1-9장과 23-27장은 후대의 첨가라는 다수의 학자들의 주장과는 상반되게, 역대기의 나머지 단락들과 유사성이 있으므로 역대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4.6. 에스라와 느헤미야

저자는 에스라-느헤미야를 역사편찬보다는 문학단편으로 보는 편이 낫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일부의 본문에는 사건에 대해 상당한 왜곡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예를 에스라 6장 끝부분과 7:1 사이에는 50년 이상의 공백이 있지만 간략하게 생략한 부분, 세스바살을 스룹바벨로 설명 없이 대체한 부분, 에스라 4:6-24의 아람어 자료 사용에 나타난 부정확성을 예로 든다. 저자는 에스라-느헤미야에 나타난 문학적 편집을 통한 일관성을 강조하며 에스라-느헤미야에 나타난 역사성에 의문을 던진다.

2.5. 비판적 읽기

역사서는 방대한 책이다. 방대한 책을 200페이지 정도로 안내하고자 할 때 부딪히는 문제는 모든 사항을 잘 요약해 소개할 것인가, 아니면 특징적인 주제를 강조하면서 강하게 독자를 자신이 끌고 가고 싶은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이 책은 전자의 방법을 취했다. 저자 자신의 뚜렷한 입장을 견지하기보다는 주어진 항목을 깔끔하게 요약하고 소개한다. 그렇다 보니 부분적으로 통찰력 있는 목소리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지만, 책 전체를 아우르는 저자의 뚜렷한 목소리 내지는 방법론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장점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자는 역사서를 다루는 방법론을 선택함에 있어서 역사 비평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최종적으로 구성된 책으로의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얼핏 보기 에 반대되는 방법론처럼 보이지만, 저자는 두 방법론을 적절히 잘 조화시켜 나간다. 역사비평의 효용가치를 나름대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둘째, 이 책의 구조는 매우 깔끔하다. 처음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구조를 유지하면서 일목요연하게 요점을 정리해준다. 셋째,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으로 본문의 내용을 ‘구성’이라는 단락으로 만들어 입체적인 관점으로 본문을 이해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평이하면서도 깔끔하게 정리된 책이어서 비판적으로 읽기는 쉽지 않다.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서에 대한 접근방법을 사무엘서 24장을 중심으로 설명한 점은 동일한 본문을 다양한 관점으로 설명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제공하고 있어서 매우 흥미롭고 유익했다. 다만 독법의 순서와 방법의 소개에 있어서 다소 미진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문학비평, 양식비평, 전승사, 편집비평, 역사비평, 정경비평의 순서로 소개한다. 왜 문학비평이 맨 앞에 오고, 정경비평이 맨 뒤로 갔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일반적으로 역사비평(자료, 양식, 전승사, 편집) 다음에 정경비평과 신문학 비평을 분류한다. 신문학 비평의 경우 수사학적 전략, 문학적인 스타일, 구성 등이 관련되어 있다는 방법론을 제시하지만, 구체적인 분석에

있어서 이론의 적용이 그 방법론에 따르기보다는 임의적이다. 아울러 문학비평 내에서도 다양한 접근법을 소개할 필요도 있다. 둘째, 저지는 이 책의 서문에서 ‘이런 해석학적 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약 역사서가 독자 그리고 독자의 신앙공동체와 세상을 향해 주장하는 바를 듣게 하는 것이다’(10)라고 서술한다. 이 책에서 저지는 각 책이 저술될 당시의 독자와 청중에 집중되어 있고, 오늘날의 독자나 신앙공동체에 대한 고려나 해석학적 의미에 대한 강조점은 매우 약하다. 셋째, 위에서 지적한대로 이 책은 매우 균형 잡힌 관점으로 역사서의 각권을 안내하지만, 역사서 전체를 연결 짓는 다양한 수사학적 전략이나 의미를 짚어 엮는 작업은 찾기 어렵다.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라는 이미 알려진 패러다임을 재조명할 수 있는 문학적, 신학적 전략의 연구가 강하게 드러나지 않아 전문적인 학자들의 눈에는 진부하게 비쳐진다. 하지만 독자를 말씀에 열심을 가진 평신도나 신학생으로 설정했다면, 역사서에 대한 훌륭한 안내서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이윤경에 의해 번역되었다. 번역서를 대할 때 느끼는 생경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의미를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읽어나갈 수 있다. 다만 의미의 명확함을 위해 3장의 제목은 ‘독서의 형태들’(patterns of reading)은 ‘독법의 형태들’로, 각 책에 공통으로 나오는 ‘구성’(plot)은 ‘구도’로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인다. ‘독서’보다는 ‘독법’이 방법론에 더 적합한 단어이기 때문이다. ‘구성’은 영어의 composition 혹은 construction의 번역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나가는 말

서론에서 서술한대로 이 책은 미국의 아빙돈 출판사에서 구신약 성경 전체를 조명할 수 있도록 총 11권으로 출판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구약부분과 목시록을 합해 ‘구약학 입문 시리즈’로 출판될 계획이다. 아쉬운 점은 구신약 성경 전체를 하나로 묶고 아빙돈 출판사

의 의도대로 ‘성서학 입문 시리즈’로 신구약 학자들이 합하여 모두 번역 했으면 하는 것이다. 구신약 사이의 간격을 줄이고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구신약을 구분해 ‘구약학 입문 시리즈’로 축소시킨 것은 자세한 연유는 알 수 없지만 안타까움으로 남는다. 구신약은 한권의 성경책이기 때문이다.